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발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가 ----- 588장 ----- 다 같 이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냐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 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 도 ----- 가 족 대 표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 안에서 즐거운 민족의 명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께는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몸 되어 구원의
가정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시편 112:1-6 ----- 인 도 자

설 교 -----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 인 도 자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일 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동과 수확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은혜와 복을 나누며, 이웃에게도 이것을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분의 뜻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그분의 계명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진정한 복은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아는 자에게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땅에서 강성하게 되며, 재물도 따르는 복이 임합니다.

둘째, 정직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는 것같이 온 세상이 환난 가운데 있는 때라도 정직한 자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평안하고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4절).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 자들은 어둠과 사망의 늪에 빠져서 결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지만, 그분 앞에서 정직한 자들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취고 있기에 육신에 해로운 일은 당할지라도 결코 흑암에 빠질 일도 없고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의인은 은혜를 베푸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고, 의인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6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는 악인들과 같이 세상의 복을 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